

국립현대미술관 50주년 기념전 《광장: 미술과 사회 1900-2019》

1부.

1900-1950 덕수궁 2019. 10. 17. - 2020. 2. 9.

2부.

1950-2019 과천 2019, 10, 17, - 2020, 3, 29,



019 서울 2019. 9. 7. – 2020. 2. 9

The Fiftieth Anniversary
Exhibition of MMCA Korea
The Square: Art and Society in Korea
1900–2019

Part 1.

1900-1950 MMCA Deoksugung 2019.10.17.-2020.2.9.

Part 2.

1950-2019 MMCA Gwacheon 2019.10.17.-2020.3.29.

Part 3.

2019 MMCA Seoul 2019.9.7. - 2020.2.9.



아트셔틀버스 운행안내

출발시간 10:00 / 12:00 / 14:00 / 16:00

국립현대미술관 관람객의 편의를 위하여 무료 아트셔틀버스를 1일 4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월요일, 주말, 공휴일 운행없음)



Free shuttle bus from MMCA Seoul to Deoksugung and Gwacheon runs 4 times per day from Tuesday to Friday (excluding public holidays).

이 전시는 국립현대미술관의 개관 50주년을 기념하여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 과천, 서울에서 함께 개최되는 《광장: 미술과 사회 1900-2019》 전시 중 동시대 파트에 해당하는 3부 전시이다. 19세기말 개화기부터 해방 전후까지 20세기 전반기에 해당하는 1부 전시(1900-1950)는 덕수궁, 한국 전쟁부터 현재까지의 미술과 사회를 다룬 2부 전시(1950-2019)는 과천에서 개최된다. The Square: Art and Society 1900-2019 is a special exhibition to commemorate the 50th anniversary of the opening of the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Korea (MMCA). Jointly held at the museum's three branches of Deoksugung, Gwacheon, and Seoul, this exhibition explores the role of the public square in contemporary Korea. Two upcoming MMCA exhibitions (to be held at Deoksugung and Gwacheon, respectively) will examine the public square in the first half of the twentieth century, culminating in Korea's liberation in 1945, and in the latter half of the twentieth century, beginning with the Korean War (1950-1953).

《광장: 미술과 사회 1900-2019》 3부: 2019

3부 전시는 2019년 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광장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라는 질문을 바탕으로 기획되었다. 분단 문학의 대표작인 최인훈의 소설『광장』, 민주화 투쟁의 역사, 촛불집회의 경험을 지닌 오늘날의 한국에서 광장은 역사성과 시의성을 모두 지니며 장소성을 초월하는 특별한 단어가 되었다.

넓은 의미에서 광장은 개인의 사회적 삶이 시작되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광장은 모여 살기로 한 개인들이, 모여 사는 것으로 인해 겪게 되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직면하는 곳이다. 그리고 이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열망들이 부딪치는 과정에서 우리는 개개인이 서로 얼마나 같고 얼마나 다른지를 확인하게 된다. 성별, 나이, 직업, 정치 성향 등 개인들을 분류하는 수많은 기준들에 따라 그만큼의 다양한 입장들이 존재한다. 그래서 광장은 연대감이 극대화되는 공간이면서 동시에 분열과 혼돈의 공간이기도 하다.

결국 광장은 공동체란 무엇인가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전시에서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개인이 맞닥뜨리는 문제들을 짚어보면서 다원화된 현대 사회에서 타인과 함께 산다는 것의 의미, 변화하는 공동체의 역할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The Square: Art and Society of Korea 1900-2019 Part 3, 2019

The Korean word for a public square—"gwangjang"—has a deep historical legacy, invoking the fierce democracy demonstrations of the 1980s and early 90s, the recent candlelight protests near Gwanghwamun, and Choi Inhoon's landmark novel *Gwangjang* (1960), which documents the division of Korea and its resultant tragedies. Charged with such compelling associations, "gwangjang" is a powerful term that transcends physical space, equipped with both specificity and timelessness.

In a broader sense, a public square is where the social life of an individual begins. As social beings, each of us must live together with other people. This necessity becomes reality in the square, where individuals must gather to confront the myriad problems and issues that arise from their social existence. Our attempts to collectively resolve such problems inevitably lead to collisions of disparate aspirations and desires, which reveal how similar or different we are as individuals. Each of the countless standards that divide us—age, gender, occupation, political inclination, etc.—corresponds to its own divergent view or perspective. Thus, the square is a space that simultaneously embodies solidarity and separation.

Above all, a public square is the space for continually questioning the meaning of a community. Delving into the problems faced by individual members of a community, this exhibition contemplates what it means to live together and the changing role of community in our increasingly pluralistic society.

전시실 평면

В1

3전시실 Gallery 3

- ① 요코미조 시즈카
- ② 주황
- ③ 오형근
- ④ 송성진
- ⑤ 김희천

4전시실 Gallery 4

- ⑥ 함양아
- ⑦ 에릭 보들레르

복도 Hall

- ⑧ 홍승혜
- ⑨ 소설집『광장』
- 10 홍진훤
- ⑪ 날리니 말라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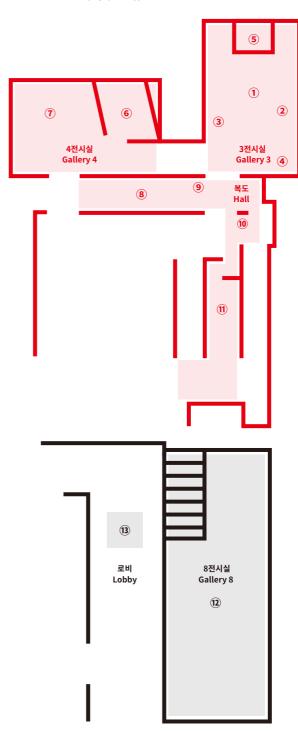
1F 8전시실 Gallery 8

⑫ 신승백/김용훈

로비 Lobby

③ 정서영

Exhibition Plan



요코미조 시즈카 〈타인〉, 1999-2000

C-프린트 / 124.5x105cm

요코미조 시즈카(1966년생)는 일본에서 출생하여 영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작가로 사진 매체의 속성을 이용하여 이미지와 타자성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탐색해왔다. 〈타인〉은 작가의 영국 정착 초기 시절에 서로 모르는 타인 간의 관계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구상된 작품이다. 이 작업을 위해 작가는 낯선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 약속된 시간에 자신의 집 거실 창문 앞에 서 있기를 요청한다. 작가는 해당 인물의 집 앞에서 기다리다가 집 주인이 창문 앞에 나타나면 조용히 사진을 찍고 사라진다. 촬영된 결과물을 다시 당사자에게 보내 작품 사용허가를 받으면 작품이 완성된다. 이 모든 과정에서 사진작가와 사진 속 주인공은 서로 타인으로 남지만 촬영이라는 행위를통해 짧은 순간이나마 연결되며 우호적으로 공존한다.

Yokomizo Shizuka Stranger, 1999-2000

C-print / 124.5x105cm

After moving to the UK, Japanese photographer Yokomizo Shizuka(b. 1966) became intrigued by her relationship with strangers, which led to her series Stranger. For this series, Yokomizo wrote to various strangers and made an odd request, asking if she could come to their house and photograph them through the window of their living room. With the person's approval, the artist would appear in front of the person's house at an appointed time, take his or her photograph, and then vanish. To complete each work, she sent the photos to her subjects and asked for their permission to use them. Thus, although the photographer and her subjects remain strangers, they are momentarily brought together through the act of photography, highlighting their brief but amicable coexistence.



3전시실 Gallery 3 ②

주황 〈출발〉, 2016

C-프린트 / 105x70cm

작가 주황(1964년생)은 사진을 이용하여 동시대 한국 여성의 이미지가 어떻게 재현되고 소비되는지를 탐구해 왔다. 〈출발〉은 공항 출국장에서 만난 여성들을 담고 있는 사진연작이다. 유학과 이민, 국제결혼, 취업, 사업 출장 등 요즘 한국 사회의 젊은 여성들이 해외로 출국하는 빈도는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으며, 이는 그 자체로 다양한 의미를 함축하는 사회 현상이다. 작품은 이들이 무엇으로부터 떠나는 것이며 어떤 삶을 향해 출발하는 것일까, 질문하게 한다.

오형근 〈로즈, 2017년 8월〉, 2017

C-프린트 / 130 x 100 cm

특정 인물군을 대상으로 그들의 사회적 정체성을 드러내는 초상 작업을 해온 사진 작가 오형근(1963년생)은 이 전시에서 20-30대 초반의 세대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한 신작들을 선보인다. 그의 사진들은 인물이 드러내보이고 싶어하거나 혹은 은연 중에 드러나는 외면적, 내면적 요소들 사이의 긴장관계와 여기에 반영되는 사회의 시선과 욕망 등을 표현한다. 때로는 개인의가장 내밀한 모습을 포착한 이 사진들은 개개인에 초점을 맞춰서 볼 때와 그룹으로 묶어서 볼 때 드러나거나 감춰지는 요소들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게 만든다.

Joo Hwang Departure, 2016

C-print / 105x70cm

Focusing primarily on portrait photography, Joo Hwang (b. 1964) uses her works to question the expected roles and images of women in contemporary society. In *Departure*, Joo documented women that she met at airports, waiting for their plane to depart. Unlike in the past, Korean women of today have more freedom and opportunities to travel the world, whether it be for study abroad, immigration, international marriage, overseas employment, or business trips. *Departure* allows viewers to consider the diverse connotations of this recent social phenomenon, conjuring questions about why the women are leaving and what type of life they might be embarking on.

Oh Heinkuhn Rose, August 2017, 2017

C-print / 130 x 100 cm

In his new series, Oh Heinkuhn(b. 1963), who is best known for his portrait photos of particular groups of people, shows his interest in the new generation of young Koreans. As in all of his works, Oh expertly apprehends the tension between the image or message that his subjects wish to transmit and that which the viewers actually discern, thereby eliciting the gap between individual desires and social perceptions. By capturing his subjects in their most intimate moments, Oh encourages us to think about what is hidden or revealed depending on whether we choose to look at someone as an individual or as a member of a group.





3

송성진 〈한평조차(1坪潮差)〉, 2018

1평집, 다중채널 기록영상, 기록일지, 사진 등 혼합설치

송성진(1974년생)은 도시와 거주지에 대한 관심을 회화, 영상, 설치 등의 방식으로 표현해 왔다. 로힝야 난민촌을 방문한 경험을 한국적 상황과 연결시킨 작품 〈한평조차〉는 한 평의 집을 짓고 온전히 존속시키는 과정을 통해 개개인의 생존 투쟁이 일상화된 시대를 이야기한다. 경기도 안산 갯벌 위에 1평짜리 집을 세워놓고, 조수나 기상 상황에 따라 떠내려가고 넘어지기를 반복하는 과정을 두 달간 기록한 영상과 집, 사진 등으로 구성되는 이 작품은 언제나 외부의 힘과 권위에 의해 결정되는 난민이나 이주민들의 불안한 삶을 연상시킨다.

Song Sung-jin One Pyeong House Between Tides, 2018

Mixed installation of 3.3m² house, multi-channel video, daily log, photographs

In his work One Pyeong House Between Tides, Song Sung-jin(b. 1974) connects his visit to a Rohingya refugee camp with the social landscape of Korea. In Korea, the standard unit of measurement in real estate is a "pyeong," which is approximately 3.3 m². With a video and photos, Song documented his two-month process of building a miniature house (one pyeong in size) on a tidal mudflat in Ansan, Gyeonggi Province. Because of the strong tides and weather conditions, the house repeatedly collapsed or washed out to sea. By persistently building, rebuilding, and preserving the tiny house, Song evinces the banality of trauma in an era when news of others' struggle for survival has become commonplace, as well as the fragile lives of refugees and immigrants, whose lives are in the hands of outside powers and authorities.



김희천 〈썰매〉, 2016

단채널 비디오, 컬러, 사운드 / 17분 27초

김희천(1989년생)은 인터넷과 디지털 인터페이스의 사용이 일상화된 시대의 변화상에 대해 언급하는 영상 작업을 발표해 왔다.〈썰매〉는 휴대폰과 노트북 분실하는 순간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공포감에 빠지게된 작가의 경험을 이야기의 출발점으로 삼아, 여기에 신종 자살 클럽을 취재하는 나레이션, 그리고 광화문일대를 배경으로 하는 레이싱 게임의 이미지를 교차시키면서 전개된다. 이 작품은 디지털 인터페이스의 사용이일상화되면서 일어나는 시간과 공간에 대한 인식의변화를 보여주면서, 동시에 온라인 커뮤니티와 단체대화방등에서 일어나는 온갖 폭력의 피해자이면서 동시에가해자이기도 한 개인들의 이중적 상황을 반영한다.

Kim Heecheon Sleigh Ride Chill, 2016

Single-channel video, color, sound / 17min 27sec.

After losing his phone and laptop, Kim Heecheon (b. 1989) began to panic over the possibility of identity theft, triggering an uncanny sense of dread and anxiety that became the basis for Sleigh Ride Chill. Incorporating Kim's investigation into a new type of suicide club and images of a racing video game against the backdrop of Gwanghwamun, the video visualizes how our perceptions of time and space have been warped by our increasing reliance on digital interfaces. The work also represents the duality in which individuals are both victims and perpetrators of diverse forms of violence taking place in group chats and online communities.



함양아 <잠>, 2015

2채널 비디오 설치, 컬러, 사운드 / 8분

함양아(1968년생)는 주로 사회와 개인의 관계에 대해고찰하는 영상 작품을 만들어왔다. 〈잠〉은 재난의 상황에서 사회시스템이 작동하는 방식을 체육관이라는 공간과 그 안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들의 몸짓을 통해 표현하는 작품이다. 종종 불안하거나 불편하게 느껴지는 카메라 앵글은 이들의 잠이 결코 편안한 것이 아님을 느끼게 하며, 현대 사회에서 벌어지는 각종 위기의 상황들을 대면해야 하는 개인들의 두려움과 불안을 담는다.

Ham Yangah The Sleep, 2015

Two-channel video installation, color, sound / 8min.

Gymnasiums are typically built as social welfare projects aimed at improving public health, but they also serve as emergency shelters during catastrophes. In *The Sleep*, Ham Yangah(b. 1968) uses the space of a gymnasium to explore the operation of social systems in times of crisis, paying particular attention to the gestures and movements of the people who assume different roles within the gym. The odd camera angles invoke a distinct sense of unease, making viewers feel that the subjects' sleep is anything but restful, thus conjuring the fear and anxiety of those whose lives have been interrupted by tragedy or disaster.



4전시설 Gallery 4 (6)

함양아 〈정의되지 않은 파노라마 1.0〉, 2018-2019

단채널 비디오, 컬러, 사운드 / 7분

지난 30년간 기술의 발전이 가져온 경제 성장과 세계화는 결국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며 개인의 삶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작품은 금융, 정치, 과학기술, 교육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벌어지는 개별적인 사건들이 어떻게 복잡한 관계망 속에서 상호 작용하며 결과적으로 하나의 서사 구조를 만들어내는지를 보여준다.

〈주림〉, 2019

단채널 비디오, 컬러, 사운드 / 7분

생존을 위한 식량이었던 음식은 산업화와 세계화의 과정 속에서 식품, 혹은 계층 간의 문화 차이를 상징하는 소비재가 되었다. 이 작품은 음식이라는 단서를 통해 동시대 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문제들을 진단하면서, 개인과 사회, 자연이 공존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를 질문한다.

Ham Yangah Undefined Panorama 1.0, 2018-2019

Single-channel video, color, sound / 7min.

While the technological advancements of the past thirty years have ushered in an era of globalization and economic growth, those changes have drastically widened the class gap, bringing more instability to the lives of many individuals. This video examines how separate threads from the fields of finance, politics, science, technology, and education are eventually woven into a single complex narrative.

Hunger, 2019

Single-channel video, color, sound / 7 min.

Formerly a provision for survival, food has now been commodified into a global industrial product that exemplifies differences of culture and class. Using food as a clue for diagnosing the problems of contemporary society, this video poses compelling questions about what must be done to foster the coexistence of individuals, society, and nature.



에릭 보들레르 〈막스에게 보내는 편지〉, 2014

단채널 비디오 및 편지 74개 / 103분 12초

에릭 보들레르(1973년생, 프랑스)는 역사와 지역 안에서 단절되거나 사라진 존재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에세이 형식으로 재구성해하여 사진, 영화 등으로 담아내는 작업을 해왔다. 〈막스에게 보내는 편지〉는 작가와 압하지야 공화국에 사는 친구 막스 그빈지아(Max Gvinjia) 사이의 서신교환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작품이다. 조지아 서북부에 위치한 압하지야는 1992-93년의 내전후 사실상 조지아로부터 독립했으나 국제사회로부터 국가의 자격을 인정받지 못한 미승인 국가이다. 작가가 압하지야의 전 외무부 장관이자 활동가인 막스에게 보내는 편지들과 막스가 음성 파일의 형태로 보내는 답장, 압하지야의 풍경과 일상을 담은 영상으로 이루어진 이 작품은 포용과 배제와 개념을 대비시키면서 국가라는 공동체가 성립하는 조건 자체에 대해 질문을 던진다.

Eric Baudelaire Letters to Max. 2014

Single-channel video and 74 letters / 103min 12sec.

Eric Baudelaire(b. 1973, France) is a visual artist and filmmaker, interested in historical and political events that have not found their representation. *Letters to Max* is based on the artist's correspondence with his friend Max Gvinjia in Abkhazia, a de facto republic in northwestern Georgia. Although Abkhazia claimed independence after its war with Georgia in 1992 and 1993, only a few countries have recognized its autonomy. Through letters between Baudelaire and Gvinjia (an independence activist and former foreign minister of Abkhazia), audio recordings of Gvinjia, and videos of life in Abkhazia, the work contrasts the concepts of tolerance and exclusion while deliberating on the conditions that constitute the community of a nation state.



홍승혜 <바>, 2019

가구,그래픽 등

홍승혜(1959년생)는 추상적 형태와 요소들을 통해 우리 삶의 환경을 바꾸는 데 관심을 가져왔다.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광장의 영어 단어인 스퀘어(Square)가 도형이면서 동시에 공간을 의미한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이에 대한 대안으로 바(BAR)라는 이름의 공간을 만들어 제시한다.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연결선(막대기)들과 휴식이 존재하는 공간으로 구상된 이 작품은 군중의 열기가 집중되는 광장과 대비되는 평온한 장소를 지향한다.

Hong Seung-Hye Bar, 2019

Benches, wall graphic, etc

Inspired by the dual meaning of "square" (i.e., a rectangle having all four sides of equal length and an open public space with that shape), Hong Seung-Hye (b. 1959) created an alternative space called BAR. Not coincidentally, the word "bar" also has two related meanings (i.e., an elongated piece of some solid substance and a counter in a pub or restaurant with that shape.) Envisioning a space where people can rest and connect (like rods), she created this serene space in contrast to a square, where people typically gather in chaos and excitement.

소설집 『광장』

김사과, 김초엽, 김혜진, 박솔뫼, 윤이형, 이상우, 이장욱 지음

이 전시를 위해 특별히 집필된 일곱 개의 단편 소설이 실린 책이다. 소설가들에게는 "광장"이라는 전시의 주제어와 원고지 80매라는 분량, 그리고 마감 날짜만을 제시하여 원고를 의뢰하였다. 책에는 시청앞 광장에서 집단 주거단지 내의 공용공간, 휴대폰의 단체대화봥, 확장된 감각을 소통하는 새로운 네트워크 시스템까지 다양한 형태의 광장들이 등장한다. 소설가들의 문학적 상상력을 통해 광장은 다시 한번 확장된다.

Gwangjang (Public Square), a Collection of Short Stories

written by Kim Sagwa, Kim Choyeop, Kim Hye-jin, Bak Solmay, Yun l-hyeong, Yi Sangwoo, Lee Jangwook

In the seven short stories in this book, which were written especially for this exhibition, the writers use their literary imaginations to expand the concept of a public square. The only guidelines given to the selected authors were the length, deadline, and keyword "gwangjang" ("public square"). The resulting stories explore an array of related topics, ranging from the square in front of Seoul City Hall to the communal space of a residential complex, and from a mobile messaging app to a new network for communicating enhanced perceptions.



9

홍진훤 〈이제 쇼를 끝낼 때가 되었어〉, 2019

피그먼트 프린트에 큐알 코드 / 60x80cm

사진작가이자 기획자로 활동해온 홍진훤(1980년생)은 주로 사회적 사건과 관련한 풍경들을 담는 작업들에 집중해 왔다. 광장이 물리적 공간에서 가상의 공간으로 넘어가는 연결 지점을 작품의 출발점으로 삼은〈이제 쇼를 끝낼 때가되었어〉는 여론의 집결지로서의 광장의 기능을 주시한다. 이 작품은 웹크로울러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청와대 청원게시판에서 수집한 주요 주제어들을 다시 구글 검색엔진에 보낸 후, 그 검색결과에서 다시 추출한 문장과이미지들을 조합하여 만들어지는 웹페이지이다. 작품은 방향성 없는 문장과 이미지들을 통해 온라인으로 이전된 광장의 대립과 투쟁을 드러내며, 작동과 오작동을 관찰한다.

Hong Jinhwon I Think It's Time I Stopped the Show, 2019

QR code on pigment print / 60x80cm

Beginning from the point at which the square transforms from a physical to a virtual space, Hong Jinhwon (b. 1980) created *I Think It's Time I Stopped the Show*. Highlighting the role of a town square as a gathering place for public opinions, Hong created a website by first using a web crawler program to collect keywords from "The National Petition of South Korea," then searching for those terms on Google and assembling sentences and images from the search results. Devoid of sense or direction, the convoluted sentences and images reveal the conflicts that have accompanied the shift from the public square to the internet.



날리니 말라니 〈판이 뒤집히다〉, 2008

턴테이블 32개, 마일러 실린더, 할로겐 조명, 사운드 20분

달라니 말라니(1964년생, 인도)는 역사와 사회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이주와 충돌, 젠더, 글로벌리즘과 소비주의 등의 주제를 다루는 설치 작업을 만들어왔다. 〈판이 뒤집히다〉(2008)는 개인의 삶을 위협하는 온갖 종류의 폭력과 재난에 대한 우화들을 상징적인 방식으로 연출한 작품이다. 전시장 벽에 그림자로 투사되는 이미지들은 성경이나 신화, 역사에 등장하는 이야기들을 19세기 벵골 서부에서 발원한 칼리가트 양식으로 그린 것으로, 이는 화가들이 사회적, 정치적 소재를 그림으로 그리기 시작한 시기와도 일치한다고한다. 말라니는 1990년대 초반부터 턴테이블을 통해이미지들을 회전시키는 설치 방식을 작품에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불교의 기도 도구인 마니차에서 영감을 받은 것으로 변화에 대한 갈망을 표현한다.

Nalini Malani The Tables Have Turned, 2008

Thirty-two turn tables, reversed painted Mylar cylinders, halogen lights, sound 20min.

Nalini Malani(b. 1946, India) has mainly focused on themes of displacement, conflict, transnational politics, critical examination of gender roles and the ramifications of globalization and consumerism. In her installation The Tables Have Turned (2008), Nalini Malani intersperses symbolic images of fables about disasters and violence that threaten the lives of individuals. Projected as shadows, the images of the Bible, history, and myth represent the "Kalighat" School" of painting, which originated in West Bengal in the nineteenth century, when painters were first beginning to depict social and political motifs. Malani's innovative technique of using a turntable to rotate images, which she has been using since the early 1990s, was inspired by Buddhist prayer wheels and represents the aspiration for change.



8전시실 Gallery 8

신승백 김용훈 〈마음〉, 2019

기계적 오션 드럼, 마이크로컨트롤러, 바다 시뮬레이션, 얼굴 감정 인식 네트워크 카메라, 컴퓨터, 모니터

신승백 김용훈(1979, 1980년생)은 인공 지능 등의 최신 기술을 사용여 동시대 및 미래 사회에서의 기술의 역할에 대해 질문하는 작업을 만들어 온 작가 그룹이다. 이번 전시에서는 광장을 사람들의 마음이 모이는 바다로 해석하여, 관람객의 표정을 수집한 데이터를 파도의 형태로 변환시키는 작품을 만들었다. 미술관에 모이게 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루는 우연하고 일시적인 공동체는 시시각각 소리와 형태를 달리하는 파도의 모습으로 펼쳐진다.

Shinseungback Kimyonghun Mind, 2019

Mechanical ocean drums, microcontroller, sea simulation, facial emotion recognition network camera, computer and monitor

Interpreting a square as a sea where people's minds gather, Shinseungback Kimyonghun—the pairing of artists Shin Seung Back(b. 1979) and Kim Yong Hun (b. 1980)—produced this ingenious installation that transforms the data of viewers' facial expressions into waves. The sounds and shapes of the waves continuously change and fluctuate, manifesting the momentary and arbitrary community of individuals who gather in the gallery at any given moment.

(13)

로비 Lobby

정서영 〈동서남북〉, 2007

철, 바퀴, 가변설치

정서영(1965년생)은 형식에 대한 탐구를 바탕으로 사물과 그것을 지칭하는 언어, 그리고 이에 대한 인식이 관계를 맺는 방식을 파고드는 작업을 해왔다. "동서남북"은 추상적인 공간을 구체적으로 인지하기 위해 창안된 방위의 개념이면서 동시에 무한대로 열린 공간을 의미하기도 한다. 〈동서남북〉(2007)은 이러한 개념을 울타리라는 사물의 형상으로 표현한 작품으로, 이 전시에서는 임시적이며 움직임이 가능한, 무한히 열린 구조로서의 광장을 상상해 보는 역할을 맡고 있다.

Chung Seoyoung East West South North, 2007

Steel, wheel, variable dimensions

Chung Seoyoung(b. 1965) has explored the arbitrary relationship between the material, linguistic and cognitive elements that compose an object. *East West South North* (2007) by Chung Seoyoung(b. 1965) is a quadrilateral fence that represents the four cardinal directions, a concept that simultaneously helps us comprehend the abstract concept of space while implying the infinity of open space. Within the context of this exhibition, Chung's work enables viewers to imagine a square as a temporary, movable, and infinitely open structure.





국립현대미술관 다원예술 2019

국립현대미술관 다원예술 2019는 《광장: 미술과 사회 1900-2019》 3부 전시의 주제를 공유하며 '동시대 광장'을 사유하고 질문할 다원예술 세 편을 소개한다. '동시대'라는 접두어는 우리가 기존의 '광장'과 함께하면서도 거리를 두고 바라볼 수 있는가를 질문해보는 시작점이다. 이와 같은 동시대 광장에 대한 사유는 공론장, 공공장소로의 미술관과 극장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질 것이다.

MMCA Performing Arts 2019

Sharing the themes of *The Square: Art and Society in Korea 1900-2019*, Part 3, MMCA Performing Arts 2019 introduces three performances that look at the contemporary public square. Here, the word "contemporary" acts as a starting point to question whether we can still retain the existing "public square," yet at the same time generate a critical distance to it. Such a contemplation on the contemporary public square will consequently raise questions about other public spaces, such as museums and theaters.

프로그램 일정 Program

2019	9월 September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종친부 마당 Jongchinbu Madang, MMCA Seoul	
	9.20.금(Fri) 19:00 9.21.토(Sat) 19:00 9.22.일(Sun) 17:00 ✓	유하 발케아파, 타이토 호프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곳으로의 10번의 여행〉	Juha Valkeapää, Taito Hoffrén Ten Journeys to a Place Where Nothing Happens
	10월 October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내 장소 추후 공지 Venue will be announced later, MMCA Seoul
	10.11.금(Fri) 19:00 10.12.토(Sat) 15:00 10.13.일(Sun) 15:00	카럴 판 라러 〈존재하지 않는 퍼포머〉	Karel van Laere The Non-Present Performer
2020	2월 February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멀티프로젝트홀 Multi-Project Hall, MMCA Seoul
	2.7.금(Fri) 19:00 2.8.토(Sat) 15:00 ✓ 2.9.일(Sun) 15:00	룸톤, 이장원, 정세영 〈개인주의자의 극장〉	ROOMTONE, Lee Jangwon, Jeong Seyoung A Theater for an Individualist

유하 발케아파, 타이토 호프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곳으로의 10번의 여행〉 퍼포먼스, 종친부 마당, 90분

이 작품은 너무 많은 창작 행위와 퍼포밍을 탈피하고자 하는 노력이다. 작가들은 관객을 극장이 아닌 미술관 잔디밭에 세워진 텐트로 초청하고 커피와 팬케이크를 손수 대접한다. 누군가를 연기하고 허구의 텍스트를 읽는 것 대신 오랫동안 적어왔던 자신들의 일기를 읽고 삶을 이야기하면서 퍼포머는 자기 자신이, 무대는 삶의 공간이, 관객은 손님이, 공연은 모임이 된다.

카럴 판 라러 〈존재하지 않는 퍼포머〉 퍼포먼스, 서울, 60분

아티스트이자 퍼포머인 카럴은 관객들의 눈앞에서 깊은 최면에 빠진다. 순간적으로 사물화된 그의 몸은 3명의 무용수에 의해 움직여지고 조작된다. 무대 밖 안무가의 철저한 지시를 따라야 하는 이 3명의 무용수와 스스로의 통제가 불가능한 카럴의 신체가 함께 도전하는 것은 신체에 대한 매커니즘, 무게에 대한 감각과 대응 그리고 신체의 취약성이다.

룸톤, 이장원, 정세영 〈개인주의자의 극장〉 VR 퍼포먼스, 멀티프로젝트홀, 신작, 국립현대미술관 제작

신작 〈개인주의자의 극장〉은 극장과 기술을 둘러싼 복잡한 메커니즘과 신체적 관계 속으로 관객들을 초청하고 경험하게 할 것이다. 이 작업은 VR이라는 매우 개인화된 매체를 공동의 경험 공간인 극장으로 과감히 가져와 각자의 한계와 가능성을 교차시킬 것이다. 그리고 최신 디지털 기술로 가속화되는 신체의 개념 변화가 무거운 몸의 공간인 극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실험할 것이다.

Juha Valkeapää, Taito Hoffrén Ten Journeys to a Place Where Nothing Happens, Performance, Jongchinbu Madang, 90 min.

The artists invite the audience to a tent set up on the lawn of the museum instead of a theater. After serving the audience coffee and pancakes, they begin the performance on a rocking chair. Rather than acting out a character or reading a fictive text, they tell the stories of their lives and recite the diaries they have been writing for many years. The performers become themselves, the stage becomes life, and the performance becomes a gathering.

Karel van Laere The Non-Present Performer Performance, MMCA Seoul, 60 min.

Karel Van Laere, the artist and the performer, falls into a state of deep hypnosis in front of the audience. His instantly objectified body is handed over to three dancers to be moved and manipulated. Van Laere, who has no self-control of his own body, and the three dancers, who receive orders from an external choreographer, together challenge the following concepts: the mechanism of one's own and the other's body, the sensation of and reaction to weight, and the vulnerability of human physicality.

ROOMTONE, Lee Jangwon, Jeong Seyoung A Theater for an Individualist VR performance, Multi-Project Hall, MMCA creation

The new creation, A Theater for an Individualist, will invite the audience to experience the complex mechanisms and physical relations pertaining to theater and technology. This work daringly attempts to bring VR technology into theater, introducing a highly individualized medium into a space for the collective experience. The work thereby interweaves respective limitations and possibilities of VR technology and theater. It is an experiment on how the concept of body, recently facing its technologically accelerated transformation, operates in the space for "heavy bodies," namely the theater.

교육 및 프로그램

Education & Programs

특별행사

MMCA 나잇 – 광장 9. 27.(금), 오후 5–9시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로비 1층, 서울박스, 전시실 등 전시 관람, 낭독회, 현대 클래식 공연

교육·문화프로그램

- 전시를 말하다_큐레이터 토크 11.20.(수), 오후 3-4시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3·4전시실
- 전시를 말하다_아티스트 토크 전시기간 중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3·4전시실
- 동시대 문화예술강좌 10.11.(금)-11.29.(금), 오후 5-7시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DAL
- 관람객 참여형 프로그램〈디지털 광장〉 10.16.(수)-12.31.(화)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열린공간
- 어린이·가족 참여형 워크숍〈우리들의 광장〉 10.16.(수)-12.31.(화)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열린공간
- 작품감상 교육프로그램 참여시간 홈페이지 참조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3·4전시실
- 어린이 감상가이드 전시기간 중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3·4전시실 및 로비
- 전시해설 수어통역 9-11월,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오후 4시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3·4전시실

Event

MMCA Night – The Square Sept. 27(Fri), 2019, 17:00–21:00 MMCA Seoul, Seoul Box, Gallery 3·4 Exhibition viewing, Public readings by novelists, Contemporary classical music concert

Education & Cultural Programs

- Discuss the Exhibition_Curator Talk Nov.20.(Wed), 15:00–16:00 MMCA Seoul, Gallery 3·4
- Discuss the Exhibition_Artist Talk
 To be announced
 MMCA Seoul, Gallery 3·4
- Lecture on Contemporary Art & Culture Oct.11.(Fri)-Nov.29.(Fri), 17:00-19:00 MMCA Seoul. DAL
- Participatory Program (Digital Square)
 Oct.16.(Wed)–Dec.31.(Tue)
 MMCA Seoul, Open Space
- Workshop for Children and Families 〈Our square〉 Oct.16.(Wed)-Dec.31.(Tue) MMCA Seoul, Open Space
- MMCA Exhibition Guide Sept.7.(Sat)–Feb.9.(Sun) MMCA Seoul, Gallery 3·4
- Children's Exhibition Guide Sept.7.(Sat)–Feb.9.(Sun) MMCA Seoul, Gallery 3·4 & Lobby
- Sign Language Guided Tour Sept.–Nov, On every last Wed. 16:00 MMCA Seoul, Gallery 3·4

관람시간

월, 화, 수, 목, 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금, 토: 오전 10시 – 오후 9시

입장료

서울관 통합관람권: 4,000원 금, 토 야간개장 시 무료관람 (오전 10시 — 오후 9시) 대학생 및 만 24세 이하 또는 만 65세 이상 무료 50주년 통합관람관: 6,000원 (과천, 덕수궁, 서울 각 1회 관람)

즈차

운영시간(매일): 오전 8시 – 오후 11시 시간당 2,000원

Opening Hours

Mon, Tue, Wed, Thu, Sun: 10:00 – 18:00 Fri, Sat: 10:00 – 21:00

Admission Fee

Entrance Ticket: 4,000 won Every Fri & Sat 6pm-9pm: Free College students, under 24 or over 65: Free MMCA PASS: 6,000 won (MMCA Deoksugung, Gwacheon, Seoul)

Parking

Daily Hours: 8:00 — 23:00 2,000 won per hour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03062 서울시 종로구 삼청로 30(소격동165) +82 2 3701 9500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Seoul

30 Samcheong-ro, jongno-gu, Seoul 03062, Korea +82 2 3701 9500

www.mmca.go.kr newsletter.mmca.go.kr twitter.com/mmcakorea instagram.com/mmcakorea facebook.com/mmcakorea youtube.com/mmcakorea tv.naver.com/mmca











